

# 西歐諸國의 석유산업규제완화 동향

**西歐** 제국의 석유시장 중 西獨, 英國은 종전부 터,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量·價格 모두 자율화되었으며, 한편 남구제국(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이스 등)에서는 석유제품가격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통제가 남아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석유사업은 본래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민간업자에게 특별히 위탁하고 있다”는 이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EC는 '92년까지 석유제품이 국경을 자유로이 넘어 유통되는 石油시장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석유업계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稅의 통일화 등 곤란한 문제는 있지만, EC는 시장통합을 향하여 착실히 전진하고 있으며, 남구제국도 결국은 EC의 기본방침에 따른 石油시장의 자유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1928년의 석유업법의 탄력적 운용에 따라 석유산업에 규제완화('85년)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석유제품 수입이 내수의 40%를 넘었으며, 휘발유 판매에서 차지하는 슈퍼마켓의 세어는 '88년말까지는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석유업자는 규제완화의 추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규제완화, 자유화의 영향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력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은 석유회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자율성을 행사하려 해도 행정수속이 복잡하여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 석유업계의 대부분은 '92년의 시장통합화가 자유화의 결정적인 추진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이스에서는 국영정유공장의 가동을 추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EC 정

책과의 조정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로부터 석유사업 운영의 위탁을 받은 석유회사인 캄프사가 유통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 '92년에는 EC와의 약속으로 석유시장은 완전 자유화되며 그날을 목표로 약 10개의 대석유회사가(메이저 미니메이저 등)가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류부문진출확대에 따라 경쟁격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1. EC

EC의 석유시장 통합을 위한 기본자세는 자유로운 시장의 형성이며, 회원국 정부의 석유업계에 대한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EC는 '88년 봄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통일화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石油시장 통합에 있어서의 장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품수입과 신규참여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간벌기”를 도모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압력을 강요하고 있다.

西獨과 프랑스는 휘발유의 세전 공장도 판매가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프랑스쪽이 부가가치세가 높아 세부담이 많다. 프랑스의 석유업계는 부가가치세의 평균화에 의한 일치가 실현되지 않은 채,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유통되는 '93년을 맞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일치보다도 국경 수속의 간소화가 선행되어 稅가 낮은 나라로부터 비판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세가 높은 국가로 석유제품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나, 그 결과·세의 통일화를 촉진하게 될 지도 모른다).

휘발유세액은 日本, 西獨, 英國이 거의 비슷하고, 이

〈表 - 1〉 주유소 규모의 추이

	1975	1980	1986			1990	
	주 유 소 수		주유소수	평균취급량 (m <sup>3</sup> / 年)	셀프비율 (%)	주유소수	평균취급량 (m <sup>3</sup> / 年)
벨 기 에	9,400	7,900	6,100	850	52	4,950	1,187
프 랑 스	45,000	43,800	30,400	1,054	27	26,000	1,293
이 탈 리 아	39,000	38,200	35,300	821	4	28,000	1,187
네 덜 란 드	12,300	10,800	8,500	687	68	6,700	1,000
포 르 투 갈	2,700	2,600	2,600	420	na	3,200	613
스 페 인	4,300	4,800	4,990	2,905	2	7,700	2,204
스 위 스	6,710	6,520	4,200	955	60	3,800	1,233
英 國	31,500	26,300	20,640	1,419	43	17,200	1,917
西 獨	33,000	26,800	20,050	1,780	84	17,500	2,139
計	183,910	166,720	132,780	1,182	36	115,050	1,519

註：셀프는 셀프서비스주유소를 의미

〈資料〉 Enerfinance

〈表 - 2〉 유럽의 기업별 주유소망(1986)

	프랑스	西 獨	벨기에	네 덜 란 드	英 國	이 탈 리 아	스페인	포 르 투 갈	스위스	計
Agip	190	417				13,200			190	13,997
Aral	154	3,545	360	180		90			201	4,530
BP	1,707	1,569	780	640	2,200			160	750	7,806
Campsa							4,990			4,990
Conoco		415	330		1,150					1,895
Exxon	3,000	1,860	580	696	2,893	3,678			350	13,057
Elf	6,500	452	230	332	490				220	8,224
Fina	980	549	830	337	788	1,686				5,170
Gulf					360					360
KPC			410	229	1,330	1,590				3,559
Mobil	1,270		280	330	793	2,178		289	40	6,173
Shell	2,690	1,867	790	1,400	3,120	108		235	775	10,974
Texaco		1,991	785	251	1,434				388	4,849
Total	6,200	265	195	345	626	2,570				10,231
Supemarkets	2,500	700			220	200			380	4,000
기 타	5,200	6,429	540	3,760	5,250	9,227		1,916	906	32,965
計	30,400	20,050	6,100	8,500	20,640	35,300	4,990	2,600	4,200	132,780

〈資料〉 Enerfinance

탈리아, 프랑스가 약간 높고 美國이 월등히 낮다. 또한 美國의 1인당 휘발유 소비량이 현저히 많아, 日本의

6배, 西獨의 3배이다. 만약 美國의 1인당 소비량이 西獨수준으로 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약 480만BCD(日本

〈表 - 3〉 선진국의 휘발유세와 1인당 소비량

		英 國	西 獨	프 랑 스	이탈리아	美 國	日 本
휘 발 유 稅 類	4 Q 1987	파운드/ℓ 0.243	마르크/ℓ 0.654	프 랑/ℓ 3.645	리 라/ℓ 1.072	달 러/ℓ 0.079	円/ℓ 53.8
	US \$ / kℓ 4 Q 1987	426	382	634	858	79	396
부 가 가 치 세 (%)		15	14	18.6	18	州 賣 上 稅 평균 1.5%	없 음
1인당소비량(ℓ/1987年)		520	570	400	290	1,810	310

〈資料〉 Energy Prices and Taxes. 石油事情資料

의 총 石油수입량은 상회하는 양)의 石油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2대 적자(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기여와 자원보호 및 수입비용 저하에 의한 안전 보장 향상을 위하여, 美國은 휘발유세를 일본수준으로 장기계획에 신중히 대처해야할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 2. 프랑스

1928년의 석유업법에 의하여 강력한 통제하에 있던 프랑스의 석유산업은 '85년에 대담한 규제완화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87년의 석유제품 수입은 내수의 40%

〈表 - 4〉 프랑스의 주유소 추이

(단위 : 점유율, %)

	주 유 소 수	점유율 (%)
1 9 7 3	46,000	37.5
1 9 8 0	41,000	47.5
1 9 8 2	37,500	52.5
1 9 8 4	34,200	60.0
1 9 8 6	32,000	65.0
1 9 8 7	36,600	68.3

〈資料〉 Total

를 넘었으며, 수출을 뺀 순輸入으로 보더라도 26%를 상회하였다. 휘발유 판매에서 차지하는 슈퍼마켓의 세어는 '87년 31%였으며, '88년말에는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급진전과 석유업계로부터의 불평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자유화의 영향을 여전히 지켜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The delegated monopoly(국가로부터의 위탁에 의한 독점제 : 본래 석유사업은 국가가 해야할 것이지만, 한정된 민간업자에게 특별허가를 주어, 대행시킨다는 이념)에 근거한 "A10", "A5"제도(정제업자에게는 10년, 제품 수입판매업자에게는 5년의 특별허가=Authorization 을 부여한다는 제도)는 운용의 탄력화에 따라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나, 제도적 틀이 남아 있으므로 EC 원칙에 反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석

〈表 - 5〉 주요제품의 소매시장 세어(1987)

(단위 : %)

	일반주유소	수퍼마켓 급 유 소	연료상	직 매
휘발유	68	31	—	1
경 유	51	16	—	33
난방유	—	—	69	31

〈資料〉 Total

〈表 - 6〉 슈퍼마켓 소유 SS數의 추이

	1970	1975	1980	1984	1985	1986	1987
S S 數	470	990	1,290	2,200	2,250	2,400	2,700

〈資料〉 Total

〈表 - 7〉 EC제국에 대한 산유국의 진출상황

	산유국명	판매업자 또는 파트너	사업형태	출자비율	진출연도	정제능력
英 國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Gulf Oil	정제·유통·판매	100	1983	—
		Nynas	정 제	50	1986	0.3Mt
西 獨	쿠웨이트 쿠웨이트 노르웨이	Gulf Oil	정제·유통·판매	100	1983	2.5Mt
		B P	유통·판매	100	1987	—
		Exxon	정제·유통·판매	100	1986	3.2Mt
덴 마 크	베네수엘라	Veba	정 제	50	1983 / 86	7.2Mt
스 페 인	멕시코	Petronor	정 제	34	1979	3.7Mt
이탈리아	쿠웨이트 리비아	Gulf Oil	유통·판매	100	1984	—
		Tamoil	정제·유통·판매	100	1983 / 87	4.8Mt
룩셈부르크	쿠웨이트	Gulf Oil	유통·판매	100	1983	—
네덜란드	쿠웨이트	Gulf Oil	정제·유통·판매	100	1983	3.8Mt
英 國	쿠웨이트	Hays, Naphtha Ultramar	유통·판매	100	1986 / 87	—
EC 12個國 計	EC의 총정제능력 5億9,200萬톤의 3.5% 상당					20.7Mt

유위기시에 업계에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傳家의 寶刀로서, 또한 비축의무를 지키게 하는데 적절한 것으로서, 현재 제도자체를 폐지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잔존하고 있는 규제〉

(1)프랑스船籍 탱커의 사용의무

- A10, A5 업자 모두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t海里 배이스로 원유, 제품의 3분의 2를 프랑스 船籍탱커로 수송할 의무를 지고 있다.
- A10 업자는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A5 업자는 실제로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정부는 A5 업자에게 이 규칙을 지키도록 할 수가 없다)
- EC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92년말일까지는 폐지될 예정(A10 업자는 타국에 없는 이 규칙에 의한 추가 코스트를 문제로 삼고 있으며, 조기철폐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원조합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2)비축의무

- A10, A5 업자가 연간 국내 판매량(휘발유, 경유, 난방유, 젯트유, 중유만)의 4분의1(약 90일분)에 상당하는 재고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국가 비축제도는 없음
- 독립계의 A5업자는 준수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음
- '88년 6월 1일부터 A10, A5 전업자를 주주로 한 특수법인인 SAGESS가 설립되어 45일 분의 비축을 하도록 되었다. 주주는 매월 판매량에 맞춘 회비를 지불한다. SAGESS의 목적은 1 A10 업자의 비축에 따른 독립계 강요의 배제, 2 비축량의 확보 3 위기시의 재고방출 원활화, 4 비축의무자의 재정부담 경감등이다.

3. 이탈리아

휘발유, 경유, 난방유의 가격은 전력, 가스, 주식폭등과 함께 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세전 소매가격은 유럽5개국의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결정되지만, 석유업계는 국가실정이 다른 타국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세포함 소매가격은 공식가격으로 어느 주유소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에 관심이 없으며, 주유소수는 많은 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합리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民官의 신뢰관계가 희박하며, 지방자치제의 행정수속이 복잡하고 시간을 요한다. 석유업계는 “이탈리아의 규제와 수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에 대한 분석이 EC의 보고서에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는 한편, '92년의 통합화가 자유화의 결정적인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4. 그리스

그리스는 '81년에 EC에 가입한 사회주의적인 국가이다. 국영 정유공장의 가동율에 집착하고 있으며, 민영 정유공장은 거의 수출전용으로 하고, 제품수입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고안하여, 장기에 걸쳐 EC 정책과의 사이에 조정 주장을 계속하여 왔다.

선박용과 항공기용 연료를 제외하고, 소매가격·정유공장 출하가격외에, 도매업자 마진, 소매업자 마진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스 정부는 '88년 7월 민영 정유공장으로부터 국내 시장으로의 유통이 증가되는 내용이 담겨진 법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EC는 그 개정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그리스 정부를 유럽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 5. 스페인

민족계 정유회사 6사를 주주로 한 캄푸사가 국산 연료유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86년의 EC 가입시에 석유시장을 개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4단계 자유화 계획의 2단계에 들어가 있다.

'92년 이후는 완전한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날을 위해 현재 약 10社の 메이저, 미니 메이저가 진출을 엿보고 있으며, 이중 7사는 자유화 유종인 운할유의 브랜딩과 판매를 이미 시작했다.

'88년 7월에 공표된 제2단계 자유화의 골자는 메이저에게 수입제품에 한해 석유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를 인정한 점이다. 그러나 기존 주유소의 메이저로의 이적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사의 제품 수입한도는 아직 소량이다.

'92년 이후 메이저는 하류부문의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유국 석유회사와의 경합문제가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

### □ 해외단신 □

## 로테르담 석유선물거래소 개설

로테르담에너지先物거래소(ROEFEX)로 불릴 이 원유선물거래소는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유럽유선거래소(EOE)가 5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로테르담상공회의소, 로테르담항만청과 몇몇 벤처캐피틀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거래소의 창업자본금은 6백만길더(3백만달러)

로 지난 1월16일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입회비는 2만5천길더(1만2천5백달러)이다.

지금까지 유럽의 석유선물거래는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가 독점해 왔는데, 로테르담선물거래소 신설로 두 거래소간에 주도권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